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佛敎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8년 1월 1일 (2014년 / 단기 4347년 음력 12월1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75호 수

민중 곁 부처님

고려시대, 미륵부처님은 법당이 아니라 논밭 가운데 나투셨다. 삶에 지친 민중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올렸던 미륵불은 희망의 존재요, 서원의 존재였다. 희망을 담고 갑오년의 새해가 힘차게 솟았다. 1000년전 조상들의 불심을 담았던 안성 지역 미륵부처님을 찾았다. 한분 한분, 오랜 세월의 미소가 전해온다. 사진은 왼쪽부터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기솔리 석불입상 여미륵, 남미륵, 아양동 보살입상, 매산리 석불입상.

안성=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 진제 종정예하 갑오년 신년법어

갑오년 새 아침에 진리의 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의 법입니까?

일출동산대지명(日出東山大地明)이라. 새해의 장엄한 빛이 온 지구촌을 밝게 비추는도다.

황금빛의 상서로운 기운이 마을마다 감도니 화합의 목소리 집집마다 들리겠습니다. 나무가 꽃에 집착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 비로소 더 큰 바다에 들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 앞에, 누적된 과거의 폐습, 반목과 갈등은 지난해에 잊혀 보내고 국가와 지구촌의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염원합시다.

새 아침, 새 마당에 다 함께 나섭시다. 각자의 자기의 분을 따라 수행인은 수도에 전념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헌신하며 농부는 생산에, 근로자는 일터에서, 학생은 배움에 매진할 때 태평가 울리는 일등국가 일등국민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사해오호(四海五湖)의 모든 형제들이여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남북과 동서가 있겠습니까?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니, 생명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과입니다. 원한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키워내지만 막으면 찰 때까지 다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한 게 없지만 딱딱하고 강한 것에 떨어 질 때는 물보다 더 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낮은 곳에 처 하는 그 성품이기에 삼라만상을 윤택케 하나니 갑오년 한 해엔 물과 같은 덕행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서로 다투는 이웃이 없도록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통일과 세계평화를 앞당깁시다.

인빈(人貧)함은 지단(智短)이요 마수(馬瘦)하면 모장(毛長)이로다. 사람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고, 말이 야위면 털이 길다고 하였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기를 염원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참나 가운데 큰 지혜가 있고 참나 가운데 큰 복과 큰 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립시다.

진실과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신 년 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갑오년 새아침입니다. 올해는 자유와 변화, 그리고 희망의 푸른 말,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푸른 말처럼,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들께서도 새해를 힘차게 열어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화쟁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원효스님과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만델라 등 인류의 지성들이 이 길을 이어왔습니다. 그 분들이 온 몸으로 보여준 지혜와 자비의 울림은 우리들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음에도 경제불황과 양극화, 끊임없는 분쟁과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인 고통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도 바다영토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남북한은 정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체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화해와 상생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자본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을 가르기라도 한 것처럼, 대립하고 갈등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화해의 기운이 절실합니다. 옛 말씀에 바보 셋이라도 서로 모여서 의논 하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했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서로 마음을 모아 지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햇볕과 이웃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을 두고 내가 행복할 수 없으며,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2면에 계속

“다시 길을 나서자” 2014년 불교신문 ‘제언’

긴 어둠이 지나고 해가 솟는다. 갑오년을 알리는 새해다. 천지를 밝히는 해는 어둠으로 막혔던 길을 다시 나서라고 재촉한다.

갑오년에는 청마(靑馬)가 달리듯, 힘차게 길을 걷자.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넘치는 태양의 기운처럼 살자. 남북을 가로막는 철조망을 펄펄 끓는 마그마로 녹여버리자. 61년 회갑의 시간, 너무 길었다.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사회와 마음을 가로막은 철조망도 훌훌 녹여버리자. 이웃과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서자. 소통의 길이고 배려의 길이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이웃을 만나면서 함께 가는 길이다. 하하 웃으며 이웃과 손잡고 함께 길을 걷자.

부처님께서 길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알고 있는가. 길에서 명상하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 길에서 전법의 수레를 굴리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열반을 앞두고 인도의 작은 나라 쿠시나가르로 향한 마음을 우리는 읽고 있는가. 대중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 대중 속에서 가르침을 펴다가 다툼이 없는 땅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갑오년 우리의 화두는 ‘배려’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 사회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새해 새 길을 열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안녕치 못한 이들이 많다. 힐링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남북을 가로막은 철조망 보다 무거운 이데올로기의 벽을 쌓는 이웃들에게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서자. 배려는 곧 무주상보시이고 자비의 마음이다.

그 길이 우리가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도, 미워할 존재도 잃어버린다.

한 발 나서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갑오년에는 청마를 타고 달려나가자.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자. 저잣거리에서 행복을 찾자. 부처님의 제자는 그래야 한다. 부처님께서 길에서 하셨던 대로,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

이제, 우리 다시 길을 나서자.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신년특집 56면…2976호는 1월11일 발행됩니다

詩 2000여편…‘바람의 사슬’ 당선

‘2014 신춘문예’ 결과

소설 ‘파리로 간 서방님’
동화 ‘노란 양말’ 영예

불교문인의 등용문이자 한국불교문학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2014 불교신문 신춘문예’가 성황리에 공모를 마치고 소설, 시·시조, 동화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2000여 편이 몰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시·시조 부문은 심수자 씨의 ‘바람의 사슬’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은 시인은 심사평에서 “이 작품은 우리 동시대의 처절한 삶의 비극성 도출에 방점이 찍은 수작”이라며 “이 시대의 시적 절실성이 두드러졌다”고 평했다.

소설부문은 100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이보라 씨의 ‘파리로 간 서방님’이 당선됐다. 심사를 맡은 한승원 작가는 “절 마당에 버려진 나를 데려다가 키운 묘덕스님과 화공과 공작부인과 어린 석찬스님과 나의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얽히어 있다”면서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상상력을 아름답고 절실하게 표현했다”고 평했다. 150여 편이 접수된 동화부문에서는 김정민 씨의 ‘노란 양말’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최동호 고려대 교수는 “약사여래의 맨발을 안쓰러워하는 건우의 따뜻한 마음이 동화를 읽는 내내 독자에게 전해져왔다”면서 “언어 운용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남다른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단편소설 수상자에 600만원, 동화와 시·시조는 각각 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이달 중에 열린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 대상 이상민 ‘보리암의 아침’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향적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